

이슈 리포트

2

2003년 7월 네째주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 노동자 세상

- 정자동 6층에서

- 휴게실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 2만 달러 장미빛 슬로건의 실체 ”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최근 노무현 정부가 국정 의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비전 제시의 수처이다.

대한국민 국민 치고 그 누구 하나 잘 살아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마는 “일인당 국민 소득 2만달러”라는 말이 의구심도 가고 또한 귀에 익숙한 말이라 그 실체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하♪ 그렇구나~ ♪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내세웠던 국민총생산 천만달러, 김영삼 정권이 부르짖던 OECD 가입 1만 달러 소득시대를 연상케 되는 것은 억지일까?

박정희 정권은 마이홈, 마이카 시대 일천만달러를 이야기하면서 유신독재를 통한 장기집권을 꿈꾸었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부흥을 꾀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치적을 위한 무리한 OECD 진입을 외치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었다.

2만불!!

한국의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2,400만원. 보통 4인가족을 기준으로해서 약 9,600만원,

1세대당 약 1억원의 소득을 말한다.

노무현 정권의 2만불 달성 방안은 무엇인가?

기술혁신, 구조개혁, 노사개혁,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균형발전 등 5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기의 세부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최근의 노무현 정권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 정권 등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노동자나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였었고, 위기때마다 지역감정과 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과 정치,군사,경제적 비자주성, 국론 분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장만 하면 과연 선진국인가?**라는 의문을 낳기도 하였다.

국민소득으로 표현되는 양적 성장의 목표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적 삶에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전쟁의 위기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 미국 등 강대국에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삶, 환경이 파괴되고, 작은 나라가 지역감정에 휩싸여 분열되는 삶이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가려지고 은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들이 휘둘렀던 기존의 개발독재식 경제성장, 억압적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획일적 사고를 요구하며, 자연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저급한 상품들을 싼값에 대량 생산해서 세계시장에 내다 팔았던 개발 정책은 이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그리고 자연 환경의 희생을 전제로 국토균형발전, 당당하지 못한 대외관계, 불안한 전쟁위기 등이 아니라 경제와 환경, 그리고 남북과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지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개혁은 국민들이 동의는 방식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한 것은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고, 대외정책, 노동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약속했던 바와

다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노무현 코드는 과거와 다른 진지하고 창의적인 개혁이었다. 역대 정권이 펼쳤던 숫자 놀음의 장미빛 국민소득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합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시켜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 수치적 경제성장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

□ 금속노조 중앙교섭 쟁취

지난 7월 15일 우여곡절을 겪던 금속노조 노사간 산별 중앙교섭이 마침내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노동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며 지난 5월 6일부터 시작된 중앙교섭은 13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축소교섭, 금속노조의 9차례 파업을 거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산별노조를 많은 노조들이 하였지만 산별노조로서의 체계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산별노조로서 가장 중요한 중앙교섭이 사용자들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산별노조를 무너만 산별, 실제로는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이 그 동안 임금, 혹은 노동시간단축 등 특별하거나 단일 사안에 대한 산별업종 노사대표간의 교섭은 있었으나 조합활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섭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처음 금속노조에서 중앙교섭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그게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하였다. 더군다나 의제가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등 중요 사안 5가지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었다.

하지만 철의 노동자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신뢰와 투쟁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낸 것이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또한 사용자의 반발, 법적 다툼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산별교섭을 이룩한 것이고, 그동안의 무너 산별에서 제대로 꼴을 갖춘 산별노조로 만들어 낸 것이다.

금속 노조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은 100개의 사업장, 2만 2천여 조합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철의 노동자, 금속 조합원 동지들의 수동안의 노력에 뜨거운 동지애를 보낸다.

□ 주요 합의 내용

◇ 임금 삭감없는 주 5일제 즉각 실시

- 임금 삭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일단 금속노동조합에서는 기존 경총을 위시한 사용자들이 주장한 년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수당을 등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축소된 임금을 다른 명목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 노사정위원회, 혹은 국회 주관의 노동자와 경영계이 노동시간단축 논의 중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이 실시 시기이다. 보통 1,0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서의 즉각 도입은 대체로 인정하나, 그보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노동시간단축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리한 시간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즉각 실시를 합의한 것은 영세 규모의 노동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다.

◇ 대의원, 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

- 대의원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 중앙위원은 문서 통보를 통해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은 산별노조의 위상을 확립한 의미있는 합의인 것이다.

◇ 비정규직 보호

-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합의하였는데,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도 감독 의무와 복지후생시설 공동 사용 등을 강제한 것은 동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차별을 철폐시키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의미있는 합의이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아직도 다툼의 요소가 많은 근골격계 질환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예방활동을 명시한 것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 금속노조 산별 교섭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주 5일 근무 법제화에 큰 영향

- 지난 7월 6일 금속노조 노사간에 노동시간단축관련 의견 접근이 있었을 때 재계는 강한 반발을 하며, 동시에 차라리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나라당에 주문, 노동시간단축 법제화를 시도하였다.
- 이런 계기를 통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시간단축 입법화가 지연되다가 법제화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이제 합의에 이르렀으니 재계의 정부안 법제화 요구는 더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금속노조의 합의안에 훨씬 미달되는 정부안의 수정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년월차 축소, 실시시기 등은 정부안이 매우 비비하기에 만약에 정부안이 다시 제안된다면 대폭적인 수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 재계의 반발

- 합의서에 사측 교섭위원 몇 명이 합의를 거부하고, 또한 개별기업들이 합의내용에 반발하는 등 강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사용자를 교섭에 이끌어 내고, 위임을 하게하며, 내용에 합의하는 전 과정을 금속노조의 단결된 힘에 의해 투쟁 등을 통해 강제해 냈기에,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든 사용자 대표위원의 합의 서명은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대차와 기아차의 교섭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이 중요한 영향

-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가한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기에 메이저 완성자동차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세부적인 시행내용이 준거들이 되어, 타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현대 및 기아차 사용자들은 최대한 교섭을 미루며, 국회에서 법제화 하도록 시간을 지연하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아직 노동시간단축 논의, 다시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 KT도 단체교섭중에 있고, 또한 IT노협 차원에서 노동시간단축관련 공동 대응을 할 예정이기에 노조간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 서울대 등 국·사립대병원 7곳 모두 임단협 타결

16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대 등 국·사립대 병원 7곳 모두가 임단협을 타결 지었다. 임금인상은 대체로 5 ~ 7% 인상에 합의하였고, 특진제 폐지 등 공공성 강화 요구가 매듭지어졌다. 보건의료 노조의 투쟁이 타결된 것은 상반기의 임단투 투쟁이 대체로 매듭지어지고,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소강국면을 갖은 후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매년 직권중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이 올해는 무난하게 매듭 짓는 것 같다.

금속노사는 지난 7월15일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13차 중앙교섭에서 △기본협약 자동연장 △주5일근무제 10월1일부터 실시 △임시직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노조 대의원 월5시간 활동 보장 등을 뼈대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 7월 22일,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노정합의 파기 및 공권력 투입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근기법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 일시 : 7월 22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내(장소미정. 추후통보)
- 주요 구호: 4.20 노정합의 파기주범 건교부 장관 퇴진하라!
정부는 철도 파업 대량징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주5일제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한다!

정자동



☞ 임금 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안전 상정부터 어려움을 겪던 단체교섭은 실무소위원회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본교섭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조금 진전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중 임금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ESOP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 사측 의견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제대로 이해를 하여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불리한 면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연구적 차원에서 ESOP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간략하게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일부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인내를 갖고 2 ~ 3번 읽어본다면 향후 교섭 등에서 나오는 ESOP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주신탁이란?

1.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신탁이란?

ESOP(우리사주신탁)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ESOP 제도는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을 확대함에 따라

- ① 종업원에게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음.
- ②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여타 제도와의 차이점

① 우리사주조합제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 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

②기업연금제도 :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하여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고 퇴직 시 그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미국은 ESOP 을 기업연금으로 활용)

2.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의 운용

1)적용대상 법인

- ESOP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2)대상 종업원

- ESOP 제도의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시킴 다만, 기업의 ESOP 에 대한 출연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제외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종업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 증권거래법상 소액주주(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이상의 주주

3)출연 방식: ESOP 에 대한 출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

상장법인 및 Kosdaq 법인의 경우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및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 절차가 필요 .

- ② 기업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
자금의 출연등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
- ③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법
종업원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우선 배정되는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ESOP 에 자금 출연.

4)배정방법 및 조건

- ESOP 에 출연 또는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배정방법을 구분하되 종업원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구 분	배정방법
종업원 출연분	취득과 동시배정
기업 출연분	3 년에서 7 년범위까지 노사간 합의

- 인출가능 시기는 종업원 개인에게 배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토록 함
- 기업 출연분은 최소 4년간(배정시기 : 3년후 + 1년) 보유해야 함

* 중도인출 사유 예시 : 법인 파산 및 해산의 사유로 ESOP 이 해산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등

5)의결권 행사

-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과 미배정된 주식으로 구분하여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
- ① 종업원 계정으로 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의사표시에 따라 ESOP 의 대표자가 행사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행사
- ② 제 1 항의 경우로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ESOP 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방식으로 행사

- ③ 미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에 따라 의사표시, ㉡제 2 항과 같은 Shadow Voting 및 ㉢조합원 총회에 결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중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함

3. ESOP 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의 ESOP 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전액손비 인정
- 대주주의 ESOP 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일정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소득 금액의 10% 한도, 법인 : 소득 금액의 5% 한도
- 종업원의 ESOP 에 대한 현금출연 ⇒ 공제한도 240 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 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ESOP 은 자체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성과지급을 하기 위한 수단을 성격을 가지므로 운용단계에서 ESOP 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종업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
 - * ESOP 이 보유하고 있는 미배정된 주식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ESOP 이 여유자금을 예치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소득 등
-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출연에 의해 취득한 주식과 ESOP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 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 만원(2004 년 이후 1,800 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

휴 계 실

두 사람이 눈보라 치는 벌판을 가고 있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치고 추위는 살을 에는데, 인적도 민가도 눈에 띄지 않는 넓은 벌판이 계속되고 있었다.

얼마쯤 가다가 두 사람은 눈 위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려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거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얘깁니까?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 저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가는 다 죽게 될 거요."

그러나 얘기를 꺼낸 사람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노인을 업고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다.

다른 한 사람은 앞서 가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노인을 업은 사람은 힘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그렇지만 무거운 것을 꼭 참고 앞으로 나아갔다.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더운 기운이 끼쳐서인지 등에 얹힌 노인은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춥지 않았다.

마침내 이들은 마을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한 남자가 꿈꿈 언채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 시체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 가던 그 사람이었다.

※ 우리들 세상에서 나만 살겠다는 결국 개별로 죽자는 것이고, 동지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